

마리아 :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마태 1, 16).

복음서가 기록한 이 사실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믿고 있으며, 우리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부들은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라는 고백뿐 아니라 성부, 성령과 마리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마리아께서는] 천주 성자의 모친이 되시고 따라서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딸이 되시며 또한 성령의 궁전이 되시는 이 최고의 임무와 품위를 지니고 계신다” (교회헌장, 53항).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온전히 하느님(성자)이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의 어머니이시며 동시에 ‘성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의 어머니가 된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토대로, 431년 에페소 공의회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아들을 태중에 인간으로 잉태함으로써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466항).

그런데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 이때의 하느님은 성자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지, 성부 하느님이나 성령 하느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이 지적한 것처럼, 마리아는 성자 하느님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되시지만,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는 딸이며,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는 궁전이 되는 것이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이다(○).
마리아는 성자의 어머니이다(○) → 성자께서 하느님이시므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다(○).
마리아께서는 창조주 성부의 어머니이다(×).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어머니이다(×).

나자렛 여인이었던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루는 완전한 일치의 영역에서” (교회헌장, 63항)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이 되신 분이시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에게 성모님을 어머니로, 성모님에게는 제자를 아들로 내어 주시며 새로운 모자(母子)관계를 이어주셨다. 이후, “가톨릭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고” (교회헌장, 53항) 있으며,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교회의 어머니” (가톨릭교회교리서, 963항)로 고백하고 있다.

[2015년 9월13일 청주주부, 김대섭 바오로 신부(복음화 연구소장)]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랜다 케비나/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중훈/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옥 세레나/(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영혼을 위하여	율리아노가정	생	이애연 프로렌시아의 건강을 위하여	아빌라데레사회
연			생		
생			생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9월29일(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축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2,130.00 \$ 1,010.00
9월30일(수)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오전 7 : 30	토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25.00 \$ -
10월1일(목)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50.00 \$ 195.00
10월2일(금)	수호천사 기념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본당의 날) (팔빙수 판 값)	\$\$\$ 163.00 \$\$\$ 900.00 \$\$\$ 807.00
10월3일(토)	연중 제26주간 토요일	오전 10: 30	사제관 건축 합 계	\$ - \$ 5,280.00
10월4일(일)	연중 제27주일	오전 11: 00	미사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5 현창균 4~6월 김화연 6~7월 권영일 6~8월 심은희 7~8월 이진행 7~9월 오택기 7~12월 강석만 8~9월 윤태욱 9~10월 정훈 황성연, 김순녀 9월 김예릭 현익균 김진태 최재진 엄영자 10월 이재성

(공동체 소식)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1구역(FE), 2구역(FO), 3구역(PC), 4구역(NH), 5구역(GF), 6구역(RC), 7구역(RT), 8구역(NC), 9구역(EG), 10구역(DW)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 문 의 : 류승교 바오로 전교부장(916)708-6102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 2일 (금) 환자봉성체 있습니다.-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본당의 날 행사 및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 일시 : 9월 27일(일) 11시 미사
- ◆ 본당의 날 행사는 민속놀이로 합니다.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고, 행사 도네이션도 부탁드립니다.
- ◆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이나 전례부장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홀수구역은 파란색계통 옷, 짝수구역 빨간색 계통의 옷 입고오세요.

4. 프란치스코 교황님 미국 사목방문

- ◆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 뉴욕, 필라델피아를 사목방문하십니다.
- ◆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기도해 주세요

5. 재능기부 하실분 모집합니다

-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 ◆ 연락처 :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6. 북가주 성령기초 목상회

- ◆ 10월 16일(금) 오후4시~18일(일) 오후 3시
- ◆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회비 :260불 선착순 :35명
- ◆ 장소 :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 신청 : 이순자요안나, 김은영폴리나

7. 성모 신심 미사

- ◆ 10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
- ◆ 미사후 안나회 요셉회 있습니다.

8. 본당 골프대회

- ◆ 일시 : 10월11일 (일) 오후 1시 30분
- ◆ 장소 : Morgan Creek (shot gun) : 이번 골프대회는 연도책과 성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9. 새크라멘토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92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	\$40,295.00

10. 감사합니다!

- ◆ 본당의 날 도네이션 : 신부님(송편\$300), 이재덕(삼성48"TV) 서 메리(\$100) 김용문 요한 (\$100), 김형진(\$200), 사회복지부(\$100) 여성부(\$100) 임정남(\$100) 이주순(\$300), 윤정연(\$100) 김병준(\$200)
- ◆ 이번주 점심봉사 : 본당의 날 보조 : 여성회
- ◆ 다음주 점심봉사 : 아빌라데레사회 보조 :신부님 국마리아
- ◆ 10구역 전구역장, 김인용 미카엘 형제님이 한국에서 <연도책> 50권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전 건립기금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3,437.21

성전건립을 위한 목주기도 30만단 봉헌

지난주 목주기도 봉헌	총 누 계
1,170	267,218

지구 & 교구소식

제20차 전체 울프레야 모임

- ◆ 장소 : 새크라멘토 정혜엘리자벳 성당
- ◆ 일시 : 10월 10일(토) 오전 9시~오후4시
- ◆ 신청 : 김동현 미카엘 많은 꾸리실리스타들의 참석부탁 드립니다.

모임 안내

- 대건 안드레아회 : 9월 27일(일) 미사 후 마테오 방
- 구역장회의 : 10월 1일 (목) 오후8시 사랑 방
- 정혜 글방 : 10월 3일(토) 저녁 6시 엘리자벳방
- 성서 백주간 새로이 시작합니다
- ◆ 첫모임 : 10월 6일(화) 미사 후 데레사방
- ◆ 연락 : 이지연 크리스티나 (916)500-3830

알림

- 정혜엘리자벳 도서관 휴관 : 27일(일) 본당의 날 행사 관계로 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임객정 1권 가져가신 분은 정혜도서관으로 가져 오세요.

주일 /한글학교

- 주일학교 개학 - 9월 20일(주일) 9시 미사
- ◆ 문의 : 김미경 아네스(530)906-0265 /오민정크리스티나(213)700-0051

전례 봉사	09월 27일	10월 4일	10월 11일	10월 18일
해 설	이혜련 (데레사)	김은선 (제노베파)	김은영 (폴리나)	임상일(프란치스코)
1 독 서	이주순 (율리오)	김민규(다미아노)	김채홍(어거스틴)	진엘리사(엘리사)
2 독 서	김화선 (아네스)	송봉금(다미아나)	김준희(키아라)	임정남(실비아)
복 사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바오로)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요셉)
/기도/청소	3PC~4NH	5GF~6RC	5GF~6RC	5GF~6RC
헌금 위원	장석자 고원석	고공자 임그라시아	전비아 김미해	임상일 송돈희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 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le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 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파산법 전문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삼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요엘 2:22-24,26 제 2 독서 요한묵시록 14:13-16 복 음 루카 12:15-21

화 답 송

화답송 : 시편 67(66), 2와 4, 5과 6, 7-8 (◎ 7)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 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

얼마 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롯데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과 아우, 아버지와 아들간의 다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경영권 확보로 거결된 듯이 보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처절한 싸움에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깨어졌고, 오랜 세월 함께 회사를 일구었던 일꾼들은 형제간의 힘겨루기에 줄서기를 강요당하거나 혹은 오랜 우호적인 관계를 배신으로 결말을 내어야 했습니다. 한쪽은 승리를 쟁취했고 다른 한쪽은 패배자가 되어야 했지만, 이대로 그냥 막을 내릴 것도 아닌 듯합니다. 패배자는 전열을 가다듬어 언젠가 반격할 준비를 하겠지요. 이전 형제간 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 한쪽은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빼앗기 위해 온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비정한 관계이고 비정한 세계입니다. 경영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혈연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보다 대단할까요? 반문해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즉 재산(돈)은 곧 권력이고, 그 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부릴 수 있고, 어제의 적도 오늘의 아군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 자신을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가 될까요? 정말로 모든 것을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이 진정 자신의 것이고 자신을 지켜줄까요? 혈연 공동체를 무참히 깨버리고 사람들을 배신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얻어진 결과로 참으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모든 것은 또 다시 그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권모술수와 배신을 감행해야하고,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할까 끊임없이 감시해야하고, 빼앗긴 원수가 언제 반격을 할까 노심초사 걱정해야 합니다. 행복하기보다 불안한 날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지요.

오늘 복음은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루카 12,15)고 이야기 합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위해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루카 12,21)은 그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재산과 힘이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하느님 외의 다른 우상(재산, 권력, 명예...)은 우리에게 참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을 위해 부유해져야 합니다. 곧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부유해지는 길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나눔과 성김의 삶입니다. 가진 바를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느님을 위해 부유해지는 길입니다. 자신을 위한 재물은 결국 인간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잘된 농사에 감사하고 햇곡식과 햇과일을 만들어 조상을 기리고 이웃과 정을 나누는 후한 인정과 미풍양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지만, 따뜻한 정과 나눔을 실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미풍양속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 삶 안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이 우리들의 관계를 살찌우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번 추석은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지고 배려한다면 더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명절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곁에서 함께 추석의 기쁨을 맞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음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현동 본당 배인호 베드로 신부

장 중 지

하늘이야기

바람으로 말하고
천둥으로 가르치고
번개로 다스려도
못다한 하늘 이야기
사랑

유경환 클레멘스 · 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 · 화가



